

음운표기의 음운론*

Phonology of Transcription

정 국**
Kook Chung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ranscription of sounds from a phonological perspective. It has found that most of transcriptions have been done on a segmental basis alone,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whole phonological systems and levels, and without a ful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linguistic and phonetic alphabets. In a word, sound transcriptions have not been done on the basis of the phonology of the language and the alphabet. This study shows a phonological model for transcribing foreign and native sounds, suggesting ways of improving some of the current transcription systems such as the Hangeul transcription of loan words and the romanization of Hangeul, as well as the phonetic transcription of English and other foreign languages.

Keywords: transcription, alphabet, romanization, Hangeul

1. 서 언

본고의 목적은 음운표기(대상음, 표기수단, 표기방법)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을 보이고, 표기에 대한 음운론적 모델과 이에 따른 표기원칙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현행의 제 표기법을 검토하는 데 있다.1)

본고에서 말하는 음운표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언어 문자 표기 (영어의 로마자 표기, 국어의 한글 표기 등)
- 음성 문자 표기 (영어, 국어 등의 IPA 표기 등)
- 외국어/외래어 한글 표기 (한글로 외국어/외래어 표기하기)
- 한국어 로마자 표기 (로마자로 한국어 표기하기)
- 언어학/음운론적 표기 (지역식 표기, 음운론에서 기저형/표면형 등)

* 이 연구는 2003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영어학부

오랫동안 표기의 문제는 주로 문자만의 문제로 아니면 음성학적 문제로만 인식되어 음운론의 연구범위 밖에 있어 왔다. 따라서 음운표기는 음운론적 고려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사용되게 되었다. 특히 표기 대상음, 표기 문자, 표기방법 등 표기의 전 분야에 걸쳐 전문가나 비전문가 공히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음운론 논문에서도 표기/표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반영된 부분이 더러 보인다. 본고에서는 음운표기가 음성학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음운론의 문제임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표기는 반드시 음운론적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문제들 즉 표기 대상음, 표기 문자, 표기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에 따라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표기대상(인 음운체계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 표기수단(인 문자/기호/부호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 표기방법: 음운론적 분석에 의거한 표기 원칙 제시
- 위 원칙에 따른 현행 표기법의 문제 검토

2. 표기대상음의 음운론: 음운표기는 단순한 ‘발음’의 표기가 아니다

표기의 대상인 음운은 단순히 자음 모음 등의 분절음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즉 음운은 개개음으로가 아니라 ‘음운체계’로서 의미가 있다. 음운체계란 다음 세 가지 체계를 포함한다. (‘음운체계’에 대해서는 정 국 2001 참조)

- (1) a. 분절음 (자/모음/반모음 등)
- b. 운율단위 (음절, 음운구, 억양구 등)
- c. 운율요소 (강세/성조/리듬 등)

그리고 이 체계 속에는 각각 2 개의 차원—음성학적 차원과 음운론적 차원—이 내포되어 있고 이 둘도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1)' a. 음운론적 차원—분절음, 운율단위, 운율요소
- b. 음성학적 차원—분절음, 운율단위, 운율요소

분절음을 중심으로 체계와 차원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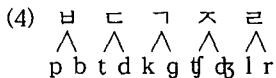
분절음이 하나의 목록(list)이 아니라 체계를 이루는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어의 예를 들어보자. 음성학적 차원에서 보면 국어는 대략 다음과 같은 분절음 체계(음성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2) p	t	tʃ	k	
b	d	dʒ	g	
p'	t'	tʃ'	k'	
p ^h	t ^h	tʃ ^h	k ^h	
	s	ʃ		h
	s'			
m	n		ŋ	
	l			
	r			

그러나 이들 각각의 분절음에 모두 하나의 자모(문자)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이 p와 b는 ㅂ로, t와 d는 ㄷ으로, k와 g는 ㄱ으로, s와 ʃ는 ㅅ으로, 그리고 l과 r은 ㄹ로 각각 하나의 문자로 표기한다. 서로 다르게 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아래에 보이는 음소체계(음운론적 체계)에서 이들 각각의 쌍이 하나의 분절음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p, b ㅂ	t, d ㄷ	tʃ, dʒ ㅈ	k, g ㄱ	
p' ㅃ	t' ㄸ	tʃ' ㅉ	k' ㅋ	
p ^h ㅍ	t ^h ㅌ	tʃ ^h ㅊ	k ^h ㅋ	
	s, ʃ ㅅ			h ㅎ
	s' ㅆ			
m ㅁ	n ㄴ		ŋ ㅇ	
	l, r ㄹ			

이와 같이 분절음은 각 차원에서 분절음간의 수평적 체계가 있을 뿐 아니라 각 차원간의 수직적인 체계가 존재한다. 즉 p, b, t, d, k, g 등이 (2)에서 보듯 조음위치/방법과 유무성 등을 기준으로 수평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은 (3)에서 보듯 수직적인 체계 또한 형성하고 있다. 이것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



(4)에서 ㅂ ㄷ ㄱ ㅈ ㄹ 등은 p b t d ... 등과 서로 차원이 다른 음들이다. 가령 ㅂ은 p도 b도 아닌 추상적인 차원(음운론적 차원)의 음이다. 한글 자모들은 '발음'이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 같지만 음성적 차원의 표기가 아니다. 아래에서 (5a)(형태음소적 표기)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5b)처럼 쓰지만 (5b)도 음성적 표기가 아니라 음소적 표기에 불과하다. (5c)와 같은 표기만이 음성적 표기에 해당된다.

기할 문자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문자(ㄷ)로 표기한 것은 참으로 음운론적이다. 중국어에 lè(樂)와 rè(熱)가 있어 분명히 l과 r의 구별이 있는데도 중국어와 국어의 음운적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어 발음표기에는 물론 음성적 표기가 필요하다. ‘발음기호’로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음성적 표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6a)는 우리가 흔히 보는 전형적인 ‘발음표기’인데, 이것은 실은 음성적 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t의 다양한 ‘음성’ 즉 t, tʰ, t̚ 등이 구별되어 표기되지 않고 이들을 포괄적으로 (음소적으로) t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l의 다양한 ‘음성’ 즉 l, l̥도 구별 없이 음소적으로 l 하나로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음성을 구별해서 표기한 (6b)의 표기만이 ‘음성’적인 차원의 표기인 것이다.

- (6) a. till [tɪl] still [stɪl] lit [lɪt]
 b. till [tʰɪl] still [stɪl̥] lit [lɪt̚]

이러한 음성적인 표기의 경우에도 음운론적 고려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듯 음성학적 차원의 음들은 음운론적 차원의 음들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체계는 ‘음운체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6b)의 ‘음성’들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운율단위도 음운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운율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인 ‘음절’인데 불행히도 현행 표기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표기가 거의 전무하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 (7) a. dense [dens]
 b. days [deɪz], cf. prism [prɪzɪm]
 c. stamped [stæmpt]

이들은 모두 1 음절이므로 하나의 (음절)단위로 발음되어야 하지만 위 [] 속의 ‘발음기호’에는 어디에도 이러한 표시가 없다. 그저 자음-모음만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음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한국인)들은 이들을 각각 2 음절 (a의 경우; ‘덴스’), 3 음절 (b의 경우; ‘데이즈’, ‘프리즘’), 4 음절(c의 경우; ‘스탬프트’)로 발음하게 된다. 한글은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유사한 글자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어를 음절로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지만, 로마자나 이와 유사한 모든 표기(발음기호 표기 포함)는 자음과 모음 등 분절음의 일렬적 연결로 밖에는 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내의 다른 단위에 대한 표기방법이 없다. 음절은 발음 표기에서 단순히 모음 기호의 수로 가능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prism 같은 예(2 음절)에서 볼 수 있듯, 모음이 없어도 하나의 음절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b)에서 [ei]는 이중 모음이므로 두 개가 아닌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음절구분이 없는 영어 등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한국어식 음절구분이 되어 버려 원어의 음절단위

와 크게 달라져 버리는 결과가 되며, 음성기호로 표기하더라도 음절구분이 되지 못해 정확한 발음이 되지 못하게 된다.

중국어 병음 표기도 음절구분을 모르면 발음이 잘못될 수 있다. 병음은 가령 pinyin이나 huanying 같은 경우 y가 각 단어 둘째 음절의 두음으로써 음절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y나 '가 원래 음절구분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y는 아무런 음가도 없는 것이므로 pinyin은 pinin과 같고 huanying은 huaning과 같다. 따라서 y에 의해 음절구분이 pin-in, huan-ing이 되어 각각 [pīn], [hwāiŋ]처럼 되어야 한다. 그런데 y는 뒤 모음이 i일 경우에만 삽입되는 것이므로 그 밖의 경우는 '표(따옴표)를 써서 구분한다. 예를 들면 ping'an(平安) 같은 경우, ping과 an 두 음절이 '표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음절구분이 pi-nin, hua-ning으로 잘못 되어 발음이 각각 [pinin], [hwaniŋ]으로 잘못 되기 쉽다. hua의 ua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wa]를 표기한 것이다. 병음표기에서 대부분의 모음연결은 (y나 '에 의해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의 음절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bijiao (比較)에서 jiao나 dākai(打開)에서 kai같은 것들은 모두 1음절이다.

물론 이러한 음절에 대한 표기가 단어의 표기에 반드시 첨부되어야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모국인을 위한 표기에서는 음절구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표기에서도 음절 구분은 다른 규칙에 의해 표현할 수 있어서 반드시 단어 표기에 표현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중국어 병음에서 보듯이 모음들의 연결은 중간에 y나 '표시가 끼지 않는 한 하나의 음절로 발음된다는 사실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만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율요소 또한 표기에서 중요한 음운체계의 한 부분이다. 운율요소는 특히 언어특유의 것이어서, 언어에 따라 어떤 운율요소가 어떻게 표기되어야 하는지는 그 언어의 음운론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영어에서는 강세가, 중국어에서는 성조가 필수적인 운율요소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들의 표기여부는 분절음의 변동이나 음절구조처럼 그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에도 많이 좌우된다. 만일 예측가능하다면 굳이 단어마다 또는 문장마다 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영어는 많은 경우 예측 가능하므로 단어에서 표기되지 않는 반면, 중국어의 성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단어마다 (병음 표기시에) 성조가 표기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도 표기의 차원이다. 가령 중국어에서 很好를 hěnhǎo(기저형)로 해알지 hénhǎo(표면형)로 해알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용도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개개의 음절(很과 好)로는 기저형(음소적) 표기로, 연결된 두 음절(很好)의 경우는 표면형(음성적) 표기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는 대신 규칙(→/____)을 별도로 쓸 수 있다.

흔히 발음표기라고 하면 (외래어(한글)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 등에서) 주어지는 것은 자음-모음-반모음 문자/기호가 고작이다. 물론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문자/기호가 있다. 예를 들어 IPA에서는 그밖에 운율단위 중에서 음절의 표기방법과 운율요소 즉 강세, 성조 등의 표기 기호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표기문자나 기호/부호만 있다고 해서 표기가 이루어지

지는 않는다. 어떤 것을 어떻게 표기해야하느냐는 음운론에서 결정해야할 문제이다. IPA에는 표기기호만 주어져 있을 뿐, 이를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The IPA does not provide a phonological analysis for a particular language, let alone a single ‘correct’ transcription, but rather the resources to express any analysis so that it is widely understood.” (IPA Handbook, p.30.)

결론적으로 음운론은 음운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표기의 대상(‘발음’)을 규정해 줄 뿐 아니라 그 음운체계 내에서 어떤 음과 자질을 표기해야 할지를 규정해 주는 것이다. ‘음운체계’를 표기의 편의상 둘로 나누어 분절음-운율단위-운율요소 등 수평적 체계를 ‘표기의 범위’로, 음성적 차원과 음운적 차원을 잇는 수직적 체계를 ‘표기의 차원’으로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하면 표기를 논할 때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 둘에 대한 논의는 아래 4장 ‘표기의 음운론적 원칙’에서 다시 하기로 하겠다.

3. 표기문자의 음운론: 문자/기호는 단순히 ‘발음’ 기호가 아니다

음운표기를 위해 사용되는 문자나 기호는 모두 다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다. 표기의 많은 문제들이 표기문자/기호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써 발생한다.

우선 표기문자/기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 하나는 언어문자이고 다른 하나는 음성문자이다. 언어문자는 한글이나 로마자 같이 일정한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며, 음성문자는 IPA나 기타 소위 ‘발음기호’로 사용되는 문자/기호들이다.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 (8) a. 언어문자: 특정 언어가 대상. 기본적으로 대상 언어의 음운체계를 표기
- b. 음성문자: 언어 보편적. 기본적으로 대상 언어의 음성체계를 표기

물론 이러한 양분법적 구분이 모든 음운 표기문자/기호의 유형을 망라할 수는 없으며, 또 위의 특성이 언제나 분명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어문자는 위 주 1과 주 2에서 밝혔듯이 그 문자나 표기법은 간단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 주 1 및 주 2 참조). 그러나 위의 분류나 특성은 기본적으로는 옳고 유용하며 표기와 관련하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한글이나 로마자를 ‘음성문자’로 사용하려 하는 것은 위의 구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탓이다 (위 2장 (5) 아래 설명 참조). 한글이나 로마자는 기본적으로 특정 언어의 기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문자들은 음운론적 문자/기호여서 ‘음성기호’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글자모 ㄹ은 l음과 r음을 포괄하는 추상적 문자인데, 이것은 이 두 음을 구별해서 쓰지 않는 한국어의 기술에는 아주 딱 알맞은 문자(언어문자)이지만 실제 음성기호로는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ㄹ은 l이기도 하고 r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글 자모 ㄱ, ㄷ, ㅂ, ㅈ 등도 마찬가지다.

로마자 t도 t, t', t^h 등 여러 가지 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t라는 문자는 음성적으로 이들 셋 중 하나만을 나타내는 음성기호로 쓸 수가 없다. (물론 로마자 t를 음성 t를 나타내는 음성기호로 쓸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쓰기도 있다. 그러나 이 때는 이 로마자 t가 언어문자로서가 아니라 음성문자로 쓰인 경우가 돼 버린다.) 로마자의 p, k 등 다른 문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에서 가장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자가 언어문자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자는 라틴어 표기에 가장 알맞게 되어 있는 문자인 것이다. 따라서 로마자는 근본적으로 한국어 표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과장해서 말하면 한국어를 일본의 가나로 표기하려 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로마자로 한국어를 음운적으로 표기하려 한다면 로마자를 한국어 표기에 맞게 고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글과 같은 체계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안되면 문자조합 등으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로마자를 음성기호처럼 쓸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때도 로마자가 한국어의 음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고쳐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 '어'나 '으'에 해당하는 로마자가 없으므로 만들어야 한다. (로마자가 영어 불어 등의 표기에 사용되는 데도 여러 가지 조합이나 수정을 거쳤음을 볼 수 있다.)

거꾸로 영어를 한글로 표기하려면 한글자모를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어의 유성-무성 대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국어의 ㄱㄷㅂ 등을 유성인 ㄱㄷㅂ과 무성인 ㄱㄷㅂ으로 나누어 글자를 고쳐야 한다. 음성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국어의 ㄹ을 두 가지로 나누어 l과 r을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언어문자는 음운적으로나 음성적으로나 원래의 표기대상인 특정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표기하는 데는 아주 부적합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 언어문자는 원어인 화자의 심리적 표상을 나타내며 이 심리적 표상은 언어특유의 것이다. 음운론에서 말하는 기저형(underlying representation)이 상당히 많은 경우 철자와 같다는 것은 언어문자가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Chomsky & Halle 1968, Sapir 1933 참조). 실제로 언어문자 표기에 의해 기저형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언어문자는 그 언어 및 그 언어사용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로마자가 흔히 '영문'자로 오해되고 마치 '국제문자'처럼 어떤 언어든 표기할 수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언어문자를 음성문자와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문자/기호의 이해에서 다음으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음성문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음성문자는 대부분 언어문자에서 나온 것이므로 언어문자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언어특유의 특성과 음운론적 표기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음성문자는 항상 '음성'을 표기하는 데 쓰이는 것은 아니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음운적 표기를 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time을 [taim]으로 표기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

에서 음성적 표기가 아니라 음소적 표기이다. 왜냐하면 [taim]에서 최소한 [t]는 [tʰ]로 표기되어야 음성적 표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음성문자가 표기하는 음성적 표기는 모두 똑 같은 음성적 표기가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IPA는 음성적 표기의 정밀성(narrowness)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정도로 정밀성의 정도를 무한대로 허용하고 있다. 즉 아주 정밀한 음성적 표기에서부터 조금 정밀한 음성적 표기까지 그 음성적 정밀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check the lens well을 음소적으로는 tʃɛkðəlɛnzwɛl이 되겠지만 이것을 음성적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된다.

- (9) Narrowness is regarded as a continuum, so that [tʃɛkðəlɛnzwɛl] might be regarded as a slightly narrow (or 'narrowed') transcription, and [tʃeʔðəlɛ̃nzwæʔ] as very narrow. (Handbook, p. 29)

따라서 IPA 기호로는 음운적(음소적) 표기에서부터 아주 정밀한 음성적 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기가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음소적으로 쓸 때는 / /를, 음성적으로 쓸 때는 []를 써서 구별한다. 이것은 IPA의 입장으로는 같은 기호를 다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음운표기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기호들은 음운론의 모든 단계—가장 추상적인 차원에서부터 가장 음성적인 차원까지—에서 사용된다. 실상 이들 기호들은 음운론의 표기수단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IPA의 성질을 알지 못하고 /k/(음소로서의 k; [k], [kʰ], [kʰ]) 등을 포괄)와 [k](음성으로서의 k; [k]음만 나타냄)를 구별하지 못하여 음소 /k/를 음성으로 잘못 알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앞 (6)에서 보인 것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발음기호'가 실은 음소기호인 줄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음성문자를 발음기호로 쓸 때에는 그것을 음소적으로 쓰는 것인지 음성적으로 쓰는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와 []가 그 속에 들어가는 음성기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음성적으로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정밀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사용하게 될 음성문자에 대한 제약으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음성문자/기호에도 위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very narrow'로 불리는 음성기호에 등장하는 기호들이 암시하는 바가 크다. 이들 중 일부 기호들은 아주 정밀한 표기 때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PA와 같은 음성기호의 음운적 문자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는 이 문자/기호들이 반드시 언어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Chung(2002)에서 지적된 대로 IPA (및 다른 발음기호들)은 서구 언어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언어보편적이어야 할 음성기호가 음운론적으로는 언어보편적이 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p, b, t, d, k, g, ʃ, ʒ, l, r들과 관련된 것인데, 이들 기호들은 유무성 및 1/r의 변별성이 뚜렷한 서구 언어들의 표기에는 적합하지만, 한국어처럼 유무성 및 1/r의 구별이 변별적이지 못한 언어를 음운론적(특히 음소적)으로 표기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것이다. 한국어의 비, 디, 기, 지, 리에 해당하는 음소적 기호가 IPA에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비, 디, 기, 지, 리는 유무성 표시가 전혀 없는 기호인데 비해 (가령 비은 그냥 '양순폐쇄음'이지 '무성 또는 유성 폐쇄음'이 아

니다), p, b, t, d, k, g, tʃ, dʒ 들은 무성/유성이 뚜렷이 표시된 기호이기 때문이다. 이들 p, b, ... 등에서 유무성을 빼고 확대 해석하지 않는 한, b은 p도 b도 아니며 d은 t도 d도 아닌 것이다. 물론 r은 l도 r도 아니다.

IPA가 그 기호를 이와 같이 만들게 된 것은, 서구 언어의 대표 중의 하나인 라틴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마자를 기반으로 IPA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음운론적 차원에서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것처럼 IPA로도 표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IPA가 지향하는 광범위한 효용—즉 음소적 표기에서부터 아주 정밀한 음성적 표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가능하다는—이 한국어 표기에는 (음소적 표기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음운론에서 이들 음성문자들을 아주 추상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음운론적 가설 속에서 쓰는 것이지, 실제 음성이나 음소의 표기로 쓰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논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어쨌든 위에서 말한 대로 p를 /p/로, b을 /b/로 쓰기 위해서는 /p/는 '(유무성 표시가 없는) 양순유기폐쇄음'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고 /b/는 '(유무성 표시가 없는) 양순 무기폐쇄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IPA기호들을 이렇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무리를 범하지 않는 한 IPA기호들이 한국어의 음소표기에 적절치 않음은 분명하다. 이것은 /p/를 '(유무성 표시가 없는) 무성폐쇄음'으로 해석하여 [p] 및 [pʰ]를 포괄하는 것과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도 흔히들 이 기호에 묶여 음운분석과 이에 따른 표기가 왜곡되는 것이 많이 보인다. 실제 예로 과거에 국어음운분석에서 국어 ㄱ, ㄷ, ㅂ, ㅈ의 기저음이 /p, t, k, tʃ/나 /b, d, g, tʃ/나, 또 ㄹ의 기저음이 /l/이나 /r/이나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국어의 기저음, 특히 음소는 이들 어느 것도 아닌 것이다 (정 국 1982 참조). 어디까지나 음운체계의 분석이 중요한 것이지 음성기호에 묶여 음운분석이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IPA는 또 기호체계 자체가 p를 기본으로 하고 h(기음화 기호)나 '(성문음화 기호) 등을 이차적으로 첨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유무성을 일차적으로 하고 유무기 등은 이차적으로 하는 서구의 장애음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한국어처럼 유무기나 경음/평음 구별이 일차적이고 유무성이 이차적인 언어를 표기하는 데는 이같이 맞지 않는 면도 있다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상 살펴 본 바 언어문자와 음성문자는 기본적으로 다르지만 실제 사용에서 많은 부분이 중첩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자를 쓰던지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쓰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즉 음소적 표기인지 음성적 표기인지, 아니면 음소적 보다 더 추상적인 차원의 표기인지 등의 구별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표기의 목적 또는 용도이다. 표기의 목적이 자국인을 위한 자국어 표기라면 음소적 표기 내지 형태음소적 표기가 될 것이고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표기라면 음성적 표기가 될 것이다. 그 목적이 음성인식/합성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음성적인 것이 될 것이나, 음성적인 것에서 어느 정도 정밀성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음성분석에 달려 있다 하겠다.

4. 표기의 음운론적 원칙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토대로 음운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음운론적 원칙들을 생각해 보자. 음운 표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10) a. 표기의 용도
- i. 표기의 목적: 자국어 언어표기용인지, 외국어 발음용인지, 음성인식/합성 등 컴퓨터용인지
 - ii. 사용자: 자국인용인지, 외국인용인지, 공용인지
- b. 표기대상
- i. ‘음운’의 범위와 차원: 어떠한 음운을 어떠한 차원에서 표기할 것인가
 - ii. 표기대상 특성의 규정: 위 (bi)의 각 음운의 어떠한 특성을 표기할 것인가
- c. 표기문자
- i. 표기에 쓸 문자의 성격: 언어문자인지 음성문자인지
 - ii. 문자의 사용 차원: 위 (ci)의 문자를 어떠한 차원에서 쓸 것인가
 - iii. 문자의 사용방법 (대문자 사용여부, 문자 조합 사용여부, 기호 사용여부 등)

위 (10bi)의 음운의 범위와 차원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 (11) a. 표기의 범위: 아래 각 체계에서 대상 언어의 음운체계에 따라 어떤 것들을 표기할지를 결정한다.
- i. 분절음 체계—표기 대상 자음, 모음, 반모음 목록
 - ii. 운율단위 체계—음절구조 음운구 등 표시여부
 - iii. 운율요소 체계—강세, 성조, 음조, 리듬 등 중 표시여부
- b. 표기의 차원
- i. 음운론적(음소적, 형태음소적, 또는 더 추상적)이나 음성적에서 선택
 - ii. 음성적 표기의 경우 정밀도 선택

이상의 고려를 바탕으로 음운표기법에는 다음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원칙에 필요시 표기의 용도를 첨가해서 명시할 수 있다.)

- (12) a. 표기대상음의 범위에 대한 원칙
- i. 음운표기의 대상은 한 언어의 (개별음이 아니라) 음운체계라야 한다.
 - ii. 음운체계의 어떤 부분들을 표기할 것인지 명시하여야 한다 (위 (11a) 참조).
- b. 표기대상음의 차원에 대한 원칙
- i. 어떤 차원의 표기를 할 것인지 명시하여야 한다 (위 (11bi) 참조).
 - ii. 음성적 표기의 경우 정밀성의 정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위 (11bii) 참조).

- c. 사용문자/기호에 대한 원칙
 - i. 표기에 사용될 문자/기호를 어떠한 차원에서 쓸 것인지 명시하여야 한다 (위 (11cii) 참조).
 - ii. 문자/기호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위 (11ciii) 참조).

5. 현행 표기법의 음운론적 검토

앞 4장에서 논의한 (10)의 고려와 (11)의 원칙에 따라 현행 표기법을 검토해 보자.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3) a. 언어문자 표기
 - i. 자국어 표기: 한글 로마자 표기법
 - ii. 외국어/외래어 표기: 외래어 한글 표기법
- b. 음성문자 표기
 - i. 외국어(영어) 발음표기
 - ii. 음성실험(인식/합성)용 한국어 음운표기

국어 로마자 표기법

먼저 한글 로마자 표기법을 살펴보자.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 (1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 i. 제 1 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ii. 제 2 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표기대상 음운의 범위나 차원, 그리고 용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용문자에 대한 원칙만 한 줄 들어있다. 범위는 물론 한국어 음운체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차원에 대해서는 원칙이 없다. 위 제 1 장(원칙)에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고 한 것과, 제 3 장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고 하여 ‘백마’를 baengma로 쓰는 것을 보아, 얼핏 보기에는 음성적 표기를 하는 듯하다. 그리고 제 2 장의 ‘붙임’을 보면 로마자 표기법의 ‘발음에 따른 표기방법이 분명히 보인다.

- (15) 로마자 표기법 제 2 장 붙임
 - i.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월곶] Wolgot 벚꽃[벚꽃] beotkkot 한밭[한밭] Hanbat

- ii.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관령] Daegwallyeong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음성적 표기가 아님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로마자 표기법은 간단히 말하면 음소적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환경에서 음성적 표기(자음 앞/어말에서 ㄱㄷㅂ과 ㄹ을 음성적으로 표기)를 사용하는 절충식으로 볼 수 있다. 모음 앞에서 ㄱㄷㅂ를 한결같이 b d g로 쓰는 것도 일종의 음소적 표기라 할 수 있으며, ‘백마’를 baengma로 쓰는 것도 음성적 이라기보다 음소적이니, 이것은 마치 ‘백마’(형태음소적 표기)를 ‘뱅마’(음소적 표기)로 바꾼 것과 같기 때문이다. ㄴ, ㄹ이 덧나는 것, 구개음화, 거센소리화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 유사한 것은 앞 2 장에서도 설명된 바 있다 ((5) 참조). 특별한 환경에서만 그리고 특별한 음(ㄹ음)의 경우에만 음성적으로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14i)에서 ‘...국어 표준발음법에 따라 음소적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음성적 표기를 허용한다’하는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문자/기호에 대한 원칙 역시 여기서는 절충식이다. 로마자를 언어문자로 사용하면서, 또한 음성문자라도 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과 r은 음성문자로 사용된 것이다. 표기의 용도 역시 혼합식이니, 국어의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언어표기이면서 발음표기이고, 내국인용이면서 외국인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기법의 문제점은 그 어느 쪽으로도 완벽하지 못하고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소적으로나 음성적으로나 다 그렇다. 그리고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변별성의 중화이다. 가령 집jip과 짚jip과 같은 경우 어말의 자음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다. 로마자 표기법은 절충식으로 하더라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도 이런 혼란스런 방법을 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혼란을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어말/자음 앞에서 ㄱㄷㅂ를 k t p로 표기하지 않고 어두/모음 앞에서처럼 똑 같이 g d b로 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굳이 어말/자음 앞에서 ㄱ ㄷ ㅂ을 k t p로 표기해야 한다면 ㄱ ㄷ ㅂ을 모든 환경에서 (g, d, b로 하지 않고) k t p로 하고 대신 ㅋ ㅌ ㅍ를 kh th ph 등 다른 문자(또는 조합)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두/모음 앞에서 ㄱ ㄷ ㅂ이 ㅋ ㅌ ㅍ와 혼동되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은 ‘동일한 음소의 음성적 변동을 표기하기 위해 쓰이는 문자/기호를 다른 음소의 음소적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는 원칙만 세우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b d g는 유성음 사이에서 쓸 수 있어 음성적 표기도 정확-분명하게 이루어진다. l/r은 애초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그대로 써도 된다. 이것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이 된다.

- (16) ㄱ ㄷ ㅂ: 모든 환경에서 k, t, p (단 유성음(모음, 비음, 유음) 사이에서는 b, d, g)
 ㅋ ㅌ ㅍ: 모든 환경에서 kh, th, ph
 ㄱ ㄷ ㅂㅂ: 모든 환경에서 kk, tt, pp

(16)은 현행 표기법을 최대한 존중해서 최소의 수정으로 가능한 방법을 보인 것이고, 이와는 다른 해결책도 얼마든지 있다. (현행 표기법 자체에도 제 32 장 제 8 항에는 한글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로마자 표기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음운론적 표기라기보다 문자 대 문자의 자역(字譯; transliteration)식 표기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하여 이 밖의 문제들도 있다 (정 국 1999 참조). 예를 들면 ‘ㄱ’ ‘ㅡ’를 각각 eo, eu로 표기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로마자가 음성문자가 아니라 언어문자임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ㄱ’, ‘ㅡ’에 해당되는 문자가 로마자에 애초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으로 대치해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ㄱ을 어두에서 g로 표기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이도 있다. 이것도 로마자가 언어문자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ㄱ에 해당하는 문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거북선’의 ‘거’를 geo로 표기하면 ‘지오’로 발음된다하여 반대하는 것은 로마자를 ‘영문’자로 혼동한 결과이니 더욱 문제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표기의 원칙에서 음소적으로 하느냐 음성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고 이 둘이 혼용될 때 어떻게 하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외래어 한글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현행 표기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표기법이다. 현행 표기법의 기본 원칙을 보자.

(17) 현행 표기법의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 제 1 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 2 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 3 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 4 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여기에도 앞서 본 로마자 표기법에서와 유사한 문제가 우선 발견된다. 표기 대상음의 범위나 차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표기법은 로마자 표기법보다 더 선명하게 ‘음운’이라는 것을 분절음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 2 항에서 ‘외래어의 1 음운은 …1 기호로 적는다’ 하였으니 이것은 분명히 분절음을 지칭하는 말인 때문이다. 그리고 제 5 항의 관용 사항을 제외한 모든 원칙이 분절음에 대한 것뿐이다. 실제로 제 5 항도 실제로는 분절음에 관한 것일 것이 틀림없으니, 모든 항목이 분절음과 분절음기호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용 용도에 대한 것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명시할 필요가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고, 남은 것은 사용문자/기호에 대한 원칙이다. 이것은 (7)에 보인대로 제 1 항에서 제 4 항까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조항들이 있다. 그것은 제 3 항(받침제한)과 제 4 항(된소리 사용금지)이다.

받침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 개만으로 제한한 것이나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 사용을 금지한 것은 간결성 때문으로 보이나, 외래어의 원음이나 변별성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제 3 장 표기세칙에서는 장음표기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장음은 한국어의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고 있으나, 새로운 기호를 쓰지 않고 현용의 한글로도 모음을 겹쳐서 자연스럽게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예: 키/키이). 한글에서 한국어 표기에 쓰이고 있는 많은 자음들을 외래어에서만 못쓰게 제한한다는 것은 외래어의 정확한 표기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외래어는 한국어의 일부이므로, 외래어 표기를 위해 한글에 없는 문자/기호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한글에 있는 문자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간결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잘못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는 음운론적으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 많이 있다. 그 하나는 제 2 장 표기일람표에서 ‘국제 음성기호(IPA)와 한글 대조표’이다. 이것은 사용문자/기호의 음운론적 성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오류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IPA는 음성문자이며 한글은 언어문자이기 때문에, 1 대 1로 대응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장에는 이것 말고도 에스파니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이탈리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등 외국어 언어문자와 한국어 언어문자의 대조표가 있는데, 이것도 언어문자가 언어특유의 것임을 고려하면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대조표에서 IPA를 음성이 아닌 음소기호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같은 음소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기(예: p를 ‘ㅍ’, ‘ㅂ’ 또는 ‘프’로)하여,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와 같이 표기차원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현행 표기법은 또한 제 3 장 표기세칙에서 어말/자음 앞의 b, d, g를 ‘브 드 그’로 표기하게 함으로써 원어의 음절을 흐트러뜨리고, 그 결과로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현행 표기법은 위에서 말한 대로 사실상 외국어 표기법으로도 쓰이고 있으므로 외국어의 발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나 그 밖의 다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 국(2002a, 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음성문자: IPA 발음표기 (영어를 중심으로)

음성문자 표기의 대표격인 IPA의 ‘발음 표기’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정 국 2002b 참조).

표기의 범위에서 음절의 표기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나, 약화모음의 표기가 불확실하여 단어나 구/문장에서 올바른 리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은 표기 차원에서 문제이다. 현재 '발음표기'는 대부분 음소적 표기인데, 이것이 음성적 표기인 줄로 잘못 인식되고, 또 그렇게 발음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음소적 표기이니만치 당연히 음성적 표기가 되지 않아, 실제음의 표기(이음변화나 탈락 등음운변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용문자 즉 IPA에 대한 인식부족과도 결부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IPA는 어떻게 쓰든 순수한 '음성문자'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IPA는 음성문자이기도 하지만 음소문자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용 용도에서도 문제가 있다. IPA 발음표기는 특히 한국인에게는 '발음' 교육 및 습득용이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한국인)용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는 표기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발음표기'는 음소적 표기이기 때문이다. 원어민에게는 음소적 표기만 주어지면 음성적 표기는 자동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음소적 표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다. 이것은 비단 IPA 기호 뿐 아니라 Webster 등 영영사전에서 일반적인 철자를 동원하여 '발음'을 표기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예: ch를 ʃ의 표기로 대응). 이들도 외국인들의 발음이 아니라 원어민들의 발음용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음성문자: 음성인식/합성을 위한 표기

김종미(2001)의 KORBET은 KOROM(Korean official romanization system 즉 현행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음성학적으로도 쓸 수 있게 확장한 것으로, 대문자나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자판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게 자판에 있는 문자만으로 표기문자를 만든 것이다. 이것은 표기범위나 차원, 사용문자/기호, 그리고 사용용도 등 모든 면을 골고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기범위에서 운율단위를 여러 가지 경계기호로 표시하여 표기에 포함한 것이나, 음성적 표기와 음소적 표기를 연결시킨 점은 다른 표기법에서는 볼 수 없는 좋은 점이다. 다만 문자사용에 있어 두 개 또는 세 개의 단음의 조합으로 하나의 음을 표기함으로써 개개음 사이에 공간을 두어 띄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이 표기법의 번거로운 측면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꽤쌌하다'는 음성적으로 gh wae ssim ha da로 써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다른 표기보다 길고 복잡하다.

이것은 대문자나 다른 기호를 쓰지 않고 컴퓨터 자판에 있는 로마자만으로 분절음을 표기하기로 한 데다가, 대문자와 기호를 쓰지 않음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문자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대문자나 기호(' , " , ^ , ~ 같은 부호)를 쓰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문자의 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1 음(음소든 음성이든)은 대부분 1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공간을 두고 개개음 사이를 띄우지 않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문장을 쓸 때 문장의 처음과 끝 경계에 / 와 []를 쓰게 되면 같은 문자로 두 가지 차원의 음을 표기할 수 있어 편리할 것이다.

특히 기호를 쓰게 되면 기호는 문자에 부수적으로 첨가되므로 문자와 기호가 하나의 문자

로 취급되게 되어 더욱 편리하다. 예를 들어 p'나 p"는 p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자로 취급된다. 그렇게 되면 공간을 띄울 필요가 없어 공간이 절약될 뿐 아니라 음절이나 단어 또는 구 단위로 문자를 붙여 쓸 수 있게 되어, 운율단위를 표시하기가 편리해지고, 읽기가 쉬워진다. (이와 같은 방향의 기본적인 시안은 정 국(1994) 참조.)

5. 결 어

이상에서 음운표기의 대상음, 표기문자/기호, 표기원칙/방법 등에 대하여 음운론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기법을 검토하였다. 음운표기는 분명히 음운론적 분석이 있어야 하고 음운체계에 대한 표기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대부분 분절음의 나열과 이에 대응하는 문자/기호의 나열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음운표기의 음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운체계와 관련하여 표기대상 음운의 범위와 차원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고, 사용문자/기호에서 언어문자와 음성문자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표기법들이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모든 음운표기법이 이러한 음운론적 고려를 바탕으로 개선되고, 또 한편으로 음운표기에 대한 더욱 활발한 음운론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86. 외래어 표기법 (문교부 고시 제85-11호 (1986년 1월 7일)).
- 교육부. 1988. 한글 맞춤법 (문교부 고시 제88-1호(1988년 1월 19일)).
- 문화관광부. 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2000년 7월 7일)).
- 정 국. 1982. "실재적 기저음운." 어학연구 18.2, 273-284. 서울대학교. (이병근, 송철의 편 (1998), 국어학 강좌 4: 음운 I (서울: 태학사), 423-442에 수록.)
- 정 국. 1994. "음성인식/합성을 위한 기본 개념과 표기법의 정립." 제11회 음성통신 및 신호처리 워크샵 논문집, 11.1, 37-41. 한국음향학회.
- 정 국. 1999. "한글 로마자 표기안." 정 국 (1999), 영어음운론, 505-529. 서울: 한국문화사.
- 정 국. 2001. "외국어 발음과 화자의 음운체계." 한국의국어대학교 논문집 제33집, 183-208.
- 정 국. 2002a. "외국어/외래어 한글표기의 문제점과 기본 원칙." 한국의국어대학교 논문집, 제34집, 213-227.
- 정 국. 2003. "외래어 표기법과 외국어 발음." 외국어교육연구논집, 제17호, 185-214. 한국외국어대학교.
- Chomsky and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 Chung, Kook (정 국). 2002b. "Transcription of Sounds and a Problem of the IPA." *Speech Sciences*, 9.1, 63-75.
-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1999.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a Guide to the Use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약칭 "IPA Handbook")
- Kim, Jong-mi (김종미). 2001. "Phonetic Extension of the Official Korean Romanization." 언어, 26.4, 669-694. 한국언어학회.

Sapir, Edward. 1933. "The Psychological Reality of Phonemes." Makkai, V. B. 1972 *Phonological Theory: Evolution and Current Practice*, 22-31.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접수일자: 2003. 11. 15.

게재일자: 2003. 12. 20.

▲ 정 국(鄭 國)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우: 130-791)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TEL: +82-2-961-4747 FAX: +82-31-603-6579

E-mail: kchung@chol.com, kchung@hufs.ac.kr

Homepage: www.freechal.com/sorimal